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5

, 칸트 윤리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5, 칸트 윤리입니다.

좋아요, 이제 주요 도덕 이론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칸트 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실제로 프로이센의 쿨니히스베르크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는 역대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때때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 3대 철학자는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 우뚝 솟은 거장급 인물이며,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영향을 통해 서양 철학에서 많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칸트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은 2,000년의 철학적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누가 독창적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칸트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인식론, 윤리학, 미학, 정치 철학에서 많은 독창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국제 연맹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가 쓴 작은 에세이는 영구 평화였습니다.

그게 그가 한 전부였다면, 그는 여전히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사실, 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짧은 에세이를 썼는데, 그것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 중 하나는 윤리를 확고한 철학적 토대 위에 놓는 것이었고, 그는 선을 알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교회 권위나 신의 특별한 계시도

필요하지 않으며, 기본적 의무는 합리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지만, 그것은 선도적인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칸트의 의제의 일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윤리의 영역에서 시도했던 것은 윤리를 확고한 합리적 토대 위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적 도덕 이론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리주의는 항상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정의합니다.

공리주의자들에게는 동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의 실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나 동기와는 무관합니다. 칸트는 사실 그들이 그것을 거꾸로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 근거는 당신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결정할 때 정말 결정적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도덕적 행위자로서 선택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도덕 원칙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칸트는 그 최고의 도덕 원칙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합리적 존재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논리적인 의미에서 필연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합리적 존재를 묶어야 하며,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상가가 되려면 당신이 지닌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합리적이라면, 당신은 이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도덕 원칙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순과 논리의 법칙만큼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모순되지 않는 당신의 논리적 의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무조건적 선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무조건적 선, 예외 없이, 어떠한 자격 없이 선한 것, 그리고 그는 그것이 선의라고 말합니다.

선의. 선의는 단순한 욕망이나 자연스러운 성향이 아닌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루 종일 경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온갖 성향과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행동하지만, 의무, 의무감, 의무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욕망에 관계없이 항상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우리의 합리적 의무의 하위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엄격하다면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 우리의 도덕적 의무는 이성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며, 이성이 우리의 논리적 의무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칸트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란 합리적인 동물, 즉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고 증거에 의해 강요받는 포유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이유입니다.

도덕성은 합리성의 하위 집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를 인식할 것입니다. 칸트는 두 가지 이성 영역, 즉 이론적 이성과 실천적 이성 사이에 일종의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이성은 진실을 목표로 하는 이성의 영역 또는 응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

우리가 스스로를 철학자 또는 학자라고 부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로서의 당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궁극적인 지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순의 법칙입니다.

그게 논리의 궁극적인 법칙 또는 원칙인데,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 모순되지 말라고 합니다. 모순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아, 당신은 스스로 모순되었군요”라고 말하면, 당신이 하지 않을 유일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모순에 빠졌다고 하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부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구별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고, 내가 한 말을 오해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과 모순된다는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과 논리의 영역에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모순되지 마십시오. 따라서 모순의 법칙은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지침입니다. 같은 것을 긍정하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실용적 이성(Practical Reason)은 이성이 행동에 적용되는 합리적 탐구의 영역입니다. 실용적 이성(Practical Reason)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론적 이성(Theoretical Reason)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실제로, 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의지를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모순의 법칙과 평행한 궁극적인 원칙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이성의 원리. 이것 역시 객관적인 이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칸트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명령 또는 위임, 이 최고의 도덕 원리입니다.

그럼, 이론적 이성의 영역에서 평행선을 채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실천적 이성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론적 이성은 모순의 법칙에 의해 인도됩니다. 실천적 이성은 이 궁극적 명령에 의해 인도되는데, 그는 이것을 범주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론적 이성은 이성만으로 모순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칸트에 따르면, 실천적 이성과 행동을 지배하는 모순의 법칙도 이성만으로 발견됩니다. 따라서 윤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성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종교적 권위 와 교회 권위를 벗어던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적 또는 교회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성만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진실을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계몽주의 세계관에 따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칸트는 계몽주의의 주요 사상가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범주적 명령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범주적 명령이란 무엇인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을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접근 방식의 각도가 여러 가지다. 우리는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범주적 명령의 이러한 버전 중 하나는 우리가 보편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주적 명령은 모순의 법칙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모순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모순의 법칙에서 말했듯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거나 믿는 다른 것과 모순되는 것을 결코 생각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범주적 명령은 당신의 의지와 모순되는 것을 결코 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모순을 피하세요. 이론적 이성에서 당신이 믿는 것에 적용되므로, 범주적 명령은 당신의 의지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범주적 명령은 당신이 동시에 그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라는 그 격언에 따라서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어 그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 중 하나는 거짓 약속입니다.

특정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해야 할까요? 이번 학기에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면, 돈이 충분한 좋은 친구가 있거나, 예를 들어 수천 달러를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혼자입니다. 학기 말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기 말에 갚을 자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칸트는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범주적 명령은 항상 그 격언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그것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글썄요, 모든 사람이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허용할 수 있을까요? 원하시나요?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때때로 또는 매일 당신에게 거짓 약속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 때문에,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심 때문에, 제 의지에 일관성을 요구하는 범주적 명령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아시다시피, 보편적으로, 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원할 수 없으니, 저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예들도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매우 특별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재능의 개발을 회피해야 할까요? 자선적으로 기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특히 낙담한 상태라면 자살해야 할까요? 그리고 칸트는 모든 경우에 범주적 명령을 적용하여 중요한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적이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인류의 나머지와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만약 당신이 그 중 어떤 것을 했다면, 당신은 이 범주적 명령의 첫 번째 버전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범주적 명령을 풀어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합리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합리적 행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것들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것이 칸트가 범주적 명령의 두 번째 버전을 발견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그저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그저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종류의 도덕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저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혐의를 받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회개하고 사과하거나, 사실, 당신이 그저 누군가를 이용한 것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코 사람들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자율성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주적 명령의 첫 번째 버전은 보편화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어진 격언이나 규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작용하도록 보편화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버전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개인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모든 칸트주의자들이 확신하듯이, 다양한 버전의 범주적 명령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있지만, 칸트가 논의하는 네 가지 버전의 범주적 명령은 모두 실제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의 네 가지에 중 하나인 거짓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아니면 두 번째 버전의 범주적 명령에 따라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제가 당신에게서 몇 천 달러를 받아 이번 학기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거짓 약속을 한 다음, 학기가 끝나면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갚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버전의 범주적 명령은 첫 번째 버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런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강조될 것입니다. 행동이나 도덕성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버전의 범주적 명령이 비난하든 다른 모든 버전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허락하면 다른 모든 사람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공식으로 표현된 범주적 명령이며, 칸트와 그의 도덕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적어도 윤리를 순전히 합리적인 토대 위에 두는 데 괜찮은 시도를 하는 이론을 내놓은 것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인상적입니다.

문제는, 그가 성공했는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도덕적 삶 전체를 인도하기에 충분한가? 칸트 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의무와 책임에 강한 강조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의무론적인 이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공리주의 이론에서 밀을 살펴보았습니다. 벤담, 밀.

그들의 이론은 결과론적입니다. 칸트의 이론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결과가 어떻든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으며, 우리는 결과와 무관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의무론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론이죠, 그렇지 않나요? 의무에 적절한 강조점을 두는 한에서요. 모든 도덕 이론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와 책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이론은 또한 객관성 면에서 보편적입니다. 좋은 일이죠? 도덕적 상식의 문제라면, 적어도 어떤 보편적 의무가 있고, 객관적인 진실과 윤리가 있다면, 칸트와 같은 이론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사실은 그 이론에 유리한 표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정의에 대한 적절하거나 적어도 괜찮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칸트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매우 의무론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는 공리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에서 결과론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칸트의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 몇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칸트 윤리에 대한 주요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의무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이 도덕적으로 적절하거나 존중받을 만하려면 의무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강하지 않나요? 사실, 너무 강합니다.

너무 까다롭죠.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병원에서 이 사람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칸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친구를 방문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서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병실에 나타납니다. 안녕, 빌.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냥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 빌은 와, 고맙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일정에서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해준 게 정말 친절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칸트주의자로서, 당신은 말합니다. 글썄요, 사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실제로 범주적 명령을 마음속으로 실행하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걸 보편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고, 모든 게 괜찮아요.

그때 빌은 뭐라고? 날 찾아오고 싶지 않았어?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네 친구는 아마, 고맙지만, 고맙지 않다고 말할 거야. 네가 진심으로 날 걱정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그저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는 건 원치 않아.

의무가 중요한 만큼, 그렇지?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이고, 의무, 책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의향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애정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우리를 방문하거나, 다른 필요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그저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 이론에서 발견되는 이런 정도의 강조점은 의무가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만큼, 그것이 전부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의무와 책임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트 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비평가에 따르면, 그것은 진정한 약점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범주적 명령을 적용할 때 마주치는 의무 충돌이라는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2 차 세계 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준 사람이 하는 일의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게슈타포가 문을 두드립니다.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시나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나요? 지하실에 있는 무고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게슈타포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러면 그 모든 무고한 사람들이 죽나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칸트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결국 모든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그것은 칸트의 이론, 또는 적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자체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글썄요, 그냥 거짓말을 하세요. 무고한 생명을 구하고, 알다시피, 게슈타포를 오도하고, 그들의 손에서 피를 씻어내고, 이 생명을 구하세요.

그것은 칸트의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고전적인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윤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충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범주적 명령이 동시에 두 가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문제입니다. 칸트 이론의 옹호자들은, 글썄요, 그것은 어떤 이론에나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공리주의 이론은 이런 경우, 나치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옵션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나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올지 꽤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치에게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더 적은 고통을 수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꽤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들은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렇게 합니다. 칸트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진실만 말해야 한다고 독단적으로 단언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범주적 명령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칸트 이론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주의 이론에 대한 특정한 진보, 개선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꽤 중요한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주적 명령으로 시험하고 있는 격언의 모호성과 관련된 비판이 있습니다. 범주적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편화 가능성의 첫 번째 버전을 따른다면, 그것은 그 격언이나 행동에 대한 기본 규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고 말하고,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책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격언들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격언을 일관되게 보편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살 다른 수단이 없고 내가 훔치는 이웃이 책을 그렇게 많이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웃의 책을 훔쳐라. 우리는 그것을 보편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서 훔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종류의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드물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먹을 때마다 책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드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격언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책을 훔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날 것이고, 그 경우 나는 그것에 대해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하자면 꽤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격언을 보편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격언도 보편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들에 특정 자격을 부여하여 그것들을 독특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 매우 드문 상황으로 만드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론에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가 공리주의와 사회 계약 이론에서 보았듯이 이 이론의 모든 통찰력과 이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만족스러운 도덕 이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론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칸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5, 칸트 윤리입니다.